

中 “한·일 코로나19 대응 늦다” 적반하장 훈수

우한 초기 실수 되풀이 우려 단호하고 재빠른 대응 촉구

일본과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느리며 충분하지 않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지적했다.

한국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일부 국가의 바이러스 대응이 늦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피해가 큰 나라들로 일본, 한국, 이란, 이탈리아 등 4개국을 꼽은 뒤 이들 나라 상황은 중국 후베이(湖北)성 밖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뭄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이 학교 개학을 연기했고, 이탈리아는 일부 지역을 봉쇄하고 축구 세리에A 경기를 취소했으며, 이란은 영화관 등의 문을 닫았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언급한 국가들의 예방·통제 조치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23일 한 남성이 주택단지 봉쇄를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드 너머로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과 후베이성 다른 도시에 신속하게 4만명의 의료진을 투입했지만 다른 나라에 ‘제2의 우한’이 생긴다면 중국처럼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각국이 우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미 심각한 나라에서

는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를 수동적으로 쫓지 말고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국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도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우한의 실수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한국의 대응은 느리다”고 말했다.

한국시보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제공한 교훈과 방역 경험을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차이장난(蔡江南) 중국·유럽 국제공상학원 의료관리정책센터 주임도 “현시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21〉 소철

소철(蘇轍, 1039-1112)은 쓰촨성 미산현 출신으로 자는 자유(子由), 호는 난성이다. 소순의 아들이고 소식의 동생으로 당송 8대가의 한 명이다. 신종, 철종때 활약해 문하시랑에 올랐다.

소순, 소식과 함께 삼소(三蘇)로 불린다. 인종 조우 2년(1057) 19살 때 형 소식과 함께 진사에 급제했다. 23세 제과(制科)에 합격했다. 인종이 내린 책문에 정사에 관해 강경한 주장을 폈다. 소철이 불순한 것을 했다며 파직해야 한다는 중신들의 주장에 인종은 “직언을 구한다고 사람을 불렀다가 직언을 했다고 물리친다면 천하에서 나를 뭐라 말하겠소?” 결국 승위를 낮추어 상주의 군사추관에 임명하였다.

적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면역법이 시행되지 않던 시절이 흘러 어느 정도 정착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실용적 입장이었다.

신종때 황하의 물결이 터져 북으로 흘러갈 것을 다시 물결을 바꾸어 동으로 흐르게 하려는 논의가 중신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그는 “물결을 북쪽으로 돌린 것은 선제 때의 일이고 지금 그 시비와 득실을 논하기는 이롭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중서사인이 되자 육조(六曹)의 조례(條例)를 개혁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특히 신종때 결정된 서리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서리들이 감원이 두려워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자 “새로 조정하는 인원은 결원이 생길 때 보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감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고

북송 신·철종대 정치인...당송 8대가

신종이 즉위해 왕안석을 기용하고 신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치삼사 조례사를 설치했다. 그를 속관으로 임명했다. 취임할 마음이 없었지만 황제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왕안석이 청묘법을 시행하려 하였다. 국가가 2할 정도의 산 금리로 농민에게 춘공기에 대해 주는 제도였다. 그는 싸게 돈을 대출하면 하급관리가 개입해 농간부리는 것이 우려되고 농민들도 허튼 곳에 쓰게 된다면 시행을 반대했다. 왕안석이 대노해 죄를 주려 하였으나 중신 진승지가 만류해 하남추관으로 나갔다. 이후 진주교관, 웅천부전서판관을 역임했다. 1079년 형 소식의 시가 조정을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법당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소식과 친한 왕안석이 중재에 나서 형을 경감했다. 소식은 항주로 강등되고 그도 연류되어 감군주염주세로 폄직되었다.

나어린 철종이 즉위하고 선인태후가 수렴청정하자 1086년 우사간에 임명되었다. 왕안석, 여계경의 신법당이 물러나고 사마광, 여계경 등의 구법당이 집권했다. 그는 신법당의 체학, 장돈 등을 준열히 탄핵했다. 재상이 된 사마광은 면역법, 청묘법을 폐지했는데 그는 면역법 폐지에 이견을 개진했다.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폐지했다가 차후에 다른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라며 점진

해 서리들의 근심을 잠재웠다. 거란에 사신으로 갔다 온 연후 어사중승이 되었고 이어 상서중승으로 올랐다. 철종 연간 문하시랑이 되었다. 철종이 죽자 동생 휘종이 즉위했고 황태후 상씨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다시 권력을 잡은 신법당에 의해 뇌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러나 상씨가 구법당과 신법당의 화해를 추구해 조정으로 돌아왔지만 옛날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치를 떠나 허난성 허창이라는 곳에 은거해 저술에 전념하다가 1112년 세상을 떠났다. 사후 단명전 학사라는 관직을 얻었다.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소순, 소식과 함께 당송 8대가에 포함될 정도로 시작에도 뛰어났다. 소식과 같은 천재성, 자유분방함은 없었지만 시의 주제가 넓고 풍부해 그만의 고유한 시 세계를 구축했다. 부친이 수레 자국을 뜻하는 철(轍)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성격이 운손하고 남과 잘 지내는 작은 아들이 큰 풍파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법당과 구법당의 격렬한 정치 투쟁 속에서 신법당에 속한 그의 정치 역정은 파란을 피할 수 없었다. 승진과 파직, 좌전을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맹자제 ‘시경전’ ‘춘추집해’ 등 많은 고전의 주석서를 썼다. 난성집 84권을 남겼다.

이스라엘, 한국인 200명 격리 수용 검토

수용지 주민들 격렬 반대 시위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이스라엘이 자국 내 한국인 200여명을 예루살렘 근처 군기지에 격리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예루살렘 남부의 유대인 정착촌인 ‘하르 길로’ 지역 주민들은 23일(현지시간) 정착촌 외부 도로를 점거하고 타이어를 태우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용지로 선정된 하르 길로가 예루살렘과 가깝다면서 병이 확산하면 예루살렘과 인근의 또다른 유대인 정착촌인 서안 구시 예지는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위험하고, 불합리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고등법원에 격리수용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구시 예지는 지역 위원회도 정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 당국과의 합의 없이

격리 수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앞서 이스라엘 인터넷매체 와이넷(Ynet)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이스라엘 당국이 한국인 관광객 약 200명을 예루살렘 근처 군기지에 격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착촌 중심부에 위치한 하르 길로 군기지는 보통 군사 훈련 및 교육에 활용되나, 한국인 수용 기간에는 어떤 이스라엘군도 이곳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스라엘 보건부와 국가안보회의의 조율을 거친 이번 조치가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격리 수용 계획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모든 한국인을 즉각 추방하는 대신 나온 방안이라고 와이넷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 등 30명이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 중 2명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아베 불신여론이 지지율 추월

56% “평소와 변함없이 외출”

세금을 쓰는 공적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겹친 영향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1-23일 전국의 유권자 1012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6%로 나타나 직전인 지난 1월 조사 때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고 24일 보도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 비율은 1월의 45%에서 이번에는 47%로 높아져 지지율을 웃돌았다.

닛케이의 자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지지율을 웃돈 것은 2018년 7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아베 내각 지지층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베 총리를 둘러싸고 잇따라 불거진 스캔들에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매년 4월 총리실 주관의 봄맞

이 행사인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세금을 쓰는 공적 이벤트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 측근인 구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교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검사)총장에 앉히기 위해 퇴직이 임박했던 그의 정년을 편법으로 연장해 줬다는 논란으로 아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벚꽃 모임 의혹과 관련한 아베 총리와 정부 측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6%에 달했다. 검사장 정년 편법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54%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 비율(32%)을 크게 웃돌았다.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응답자가 50%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40%)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으로 1위를 달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선호율이 이번 닛케이 조사에서도 26%를 기록해 1개월 새 1%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